

# 익산 '관광도시' 도약 기대

### 국·도비 248억원 확보...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등 문화유산 활용체계 정비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체계 정비를 위한 역대 최대 국·도비를 확보해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4일 시는 문화재 보수 정비와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2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유산 활용강화,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조성 등 대표적 문화유산 조성에 사용된다.

우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건물지 정비와 주변 치유 탐방로 조성, 왕궁리유적 탐방로 보수정비(56억), 왕궁리유적전사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가상체험관 조성(51억), 익산 쌍릉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및 주변정비

(55억), 금마도토성 정비 등이 추진된다.

또한 문화유산 활용강화를 통한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익산문화재야행(3억), 세계유산 활용콘텐츠 구축(9억), 세계유산 축전(7억) 등 시민과 함께 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우리나라 4개 고도(古都) 중 하나로 지정된 고도의 경관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찾기사업(15억), 고도의 산의 분산된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연계와 통합안내를 위한 세계유산탐방거점(27억), 백제 무왕의 탄생지인 마동지 및 서동생가터 주변 정비를 위한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7억) 등을 추진해 익산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 지속적인 협의로 역대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확충과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산도시이며 대한민국 4대 고도인 익산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등 국보 3건, 보물 10건, 사적 7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24건, 도지정 문화재 55건, 등록문화재 21건, 익산시 향토유적 21건 등 121건의 지정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정현을 시장, 인구정책 95개 사업 추진

### 춘포역 일원 전라선 폐선부지에 편의시설 확충 주문

익산시가 2021년부터 전입장려금 지급 등 인구늘리기를 위한 95개의 인구정책들을 새롭게 실시한다.

4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지난 12월말 기준 인구 수가 순천시를 앞지르면서 추월 당한 지 불과 한달 만에 호남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았다"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되찾도록 협조해주시는 시민, 기관·사회단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전입세대에 1

인당 10만원씩, 전입을 유도한 유공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총 95개의 인구정책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면서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인구 유출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관광객의 방문이 적은 코로나19 기간을 활용해 '2022년 익산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 500만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정 시장은 "그간 익산시는 산업분야에 치우쳐 관광분야의 활성화가 다른도시보다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고 관광과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이자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춘포역 일원 전라선 폐선부지에 대규모 도시숲이 조성되고 있는데, 올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전북도 대중교통 평가 군산시 '최우수 기관 표창'

군산시는 전라북도 주관 2020년 대중교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군산시는 버스, 공한, 택시분야 등 선진 대중교통 문화 실현과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투자해 이번 전라북도 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현재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중교통 수단, 시설 등에 홍보, 물품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

으며, 군산공항 항공노선 재개를 통해 전라북도 도민과 군산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대폭적으로 늘려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파대비 시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선진 문화를 구축하

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공직자들의 대중교통에 이용활성화 및 이용편의 증진 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전라북도 대중교통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전라북도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넓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새롭고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발굴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옥서면은 출향기업인 (주)유리치건설이 지난 12월 30일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 유리치건설, 희망나눔 캠페인 동참

### 군산 옥서면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군산시 옥서면은 출향기업인 (주)유리치건설(대표 김재식)이 지난 12월 30일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유리치건설은 옥서면 출신 김재식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다. 김 대표이사는 자수성가한 출향기업인으로 3년째 옥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구세군 군산 목양원에 매달 후원활동을 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옥서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고향발전 및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중소기업 '경제활력' 모색

### 지역내 160곳, 총 8억원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시는 4일 오후 160여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마케팅 비용 등 총 8억1천여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천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된 예산은 환기 시설을 비롯한 집진장치 설치, 조명 교체와 작업장 포장 등에 사용된다. 기숙사와 식당·화장실 개보수 등 근로자 복지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부분 역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석재·섬유업체에는 근로자 복지 편익과 노후기에 교체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업체당 최고 1천만원 내에서, 석재업체는 석분폐기물 운반비를 업체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여성기업의 경우 제품 홍보 포장용기와 카달로그 제작 등 마케팅을 위해 업체당 최고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업체가 신청접수 후 현장 실태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다.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2일까지 신청 투자유치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또는 사이버 기업지원센터를 참조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해교육사 모집 공고

군산시는 '2021년 군산시늘푸른학교' 운영을 위해 문해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문해교육사를 오는 14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군산시늘푸른학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수업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및 초·중등 학력인정반 등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군산시늘푸른학교를 함께 꾸려 갈 문해교육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문해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2)에서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선발된 문해교육사는 2021년 군산시늘푸른학교 학습장 운영기간 동안 1일 1~2개 학습장을 배정받아 문해교육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강사 수당은 1회(2시간) 기준 4만4,000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및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을 참고하시고, 군산시청 교육지원과(063-454-2606)로 문의 바랍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대, 2021년 업무 개시

군산대학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무식 없이 차분하게 2021년 신학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곽병선 총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소처럼 느려 보이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내자"고 신년 인사를 전달하였다.

곽 총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일순간 멈춰버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인류는 바이러스 백신을 얻게 되었고, 신학년 새해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대학을 일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